

고속철도망 구축 정책세미나

군산시, KTX 정차 등 철도망 발전방향 방안 위한 발표·토론의 장 마련

군산시는 2일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군산 KTX 정차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군산시 중장기 철도정책에 대하여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은 '군산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군산시 교통현황 및 관련계획,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중장기 철도망 구축 계획, 철도사업에 대한 가치 분석, 군산시 신고교통수단 도입에 대하여 제안했다.



군산시는 2일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군산 KTX 정차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낙후도가 심각하고 인구 소멸위험 위험 단계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철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며, 또한, 도내에는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다수 계획·위치하고 있어 국가사업의 성공을 위해 효율적 철도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중장기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철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 간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며, 정래 대규모 여객, 화물, 관광수요를 고려한 대응 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토론에는 좌장인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최연성국립군산대학교 교수, 권용석 전주대학교 교수, 신이경 남서울대학교 교수, 최현우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변진진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실장, 김재복 (주)태조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참석하여 철도분야에 대한 지역경제, 사회·문화적 측면 파급력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밖에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철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동력을 위해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이 논의됐다. 실제 고속철도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등이 등장하고, 지역 특산품의 배송이 활성화되었으며, 고속철도 정차지역의 회의 개최 실적이 증가하는 등 사람과 물자의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산시의 경우, 장항선~서해선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서 1시간~2

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KTX 군산역을 거점으로 복합환승센터, 산업 및 상업 시설 조성 등 지역개발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재 군산시는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변화하는 국가 철도정책 방향에 맞춰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에 힘쓰고, 군산의 교통수준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산의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제19회 군산공동보리축제(5월 2일~4일) 등 지역축제를 대비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물가안정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군산시, 공무원·소비자단체 등 민관합동점검반 구성 4개분야 지도

군산시는 제19회 군산공동보리축제(5월 2일~4일) 등 지역축제를 대비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물가안정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민원으로 지역 이미지 실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는 2일 개막하는 군산공동보리축제를 시작으로 물가 및 행사부서가 주체가 되어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요금 과다 인상 여부,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및 먹거리 부스장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

고,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인근 물가 동향 모니터링 및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축제 합동점검을 통해 깨끗한 위생 수준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공동보리축제와에도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6.20~6.22) △군산시간여행축제(10월 중) 등 군산시 대표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먹거리 입점업체·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축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자활 인프라 구축 첫 공모사업 선정

군산지역자활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심리적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4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2024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은 근로 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가 처음으로 자활 인프라 지원사업 국가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북광역자활센터의 권장사업인 '식물수경 수직재배'를 하는 작업장 공간을 위한 리모델링이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심리적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식물수경 수직재배 작업장으로 사용될 공간은 약 200평 규모의 미성동주민센터(산북동2476-1)이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10억여원이며, 이 중 7억원을 중앙에서 지원받게 되며, 완공되면 1층 작업장 2층 교육장으로 새롭게 탄생된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지역자활센터와 한마음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운영 중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연평균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

다.

오주영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과 확충으로 활력있는 지역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및 작업장의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 마련과 저소득층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 등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 선정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명품 쌀로 인정받으며 수도권 학교급식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2년간 성동구 67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 200톤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동구 선정으로 기존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5곳의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익산시는 서울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

정을 위해 지난 3월 입찰에 참여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달 2차 현장 평가와 3차 블라인드 시식·선호도 평가 등에서 고득점을 획득해 최종적으로 성동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겠다"며 "수도권 공급처 확대를 통해 친환경 쌀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CJ 햇반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유기농 CJ 햇반'과 파리바게트의 히트 상품인 '제주미음샌드'의 원료공급으로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을 공급하며 안정적 판로 확보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2024년 첫 회의 개최

군산시는 2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시의원장 신원식 부시장과 민간위원장 노기호 군산대 교수를 비롯한 15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추진 현황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수립 대응에 관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새만금 사업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새만금 지역 관련 △대통령 정무위원회 제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구체화 △새만금 기본계획 제수립 용역 추진 △제22대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선거구 통합 등 정책 변화에 맞춰 중분위의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심의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중앙동 관광지점 스탬프투어 이벤트 진행

익산시가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을 기념해 중앙동 관광지점을 대상으로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시가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을 기념해 중앙동 관광지점을 대상으로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시는 나폴레옹 유물을 보여주는 방문객들에게 중앙동 관광지점을 소개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스탬프투어 인증 이벤트'를 준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